

고 있지 않은가.”

폴은 아무 말 없이 이끌려 왔지만,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운 뒤 동틀 무렵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네.

그런데 자네에게 이 사연에 얽힌 이야기를 이 이상 계속해서 더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나? 인간의 삶에서 알아봐야 좋은 것은 아무래도 한쪽밖에 없다네.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네 삶은, 우리가 그 위에 서서 돌고 있는 지구와 닮아서 그저 단 하루에 불과하니, 그 하루의 한쪽은 다른 한쪽이 어둠으로 빠져들지 않는 이상 빛을 받을 수 없는 법일세.

“어르신,”

내가 그에게 말했다.

“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. 그토록 애처롭게 운을 떼셨는데 끝까지 다 이야기해주셔야지요. 행복이 주는 인상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, 불행이 주는 인상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. 말씀해주세요, 가여운 폴은요, 어떻게 되었습니까?”

폴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먼저 본 것은 흑인 여종 마리가 바위 위에 올라서서, 먼 바다 한가운대를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었네. 폴은 아주 멀리 그녀가 보이는 곳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쳤다.

“비르지니는 어디 있어?”

마리는 어린 주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울기